

한국도시 부부의 건강한 결혼 관련 변인연구*

Predicting Psycho-Social Variables in the Healthy Marriage among the Korean Urban Couples

부산 고신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宋 貞 我

Dept. of Home Management

Pusan Kosin University

Assistant Prof.: Jung Ah, Song

본 연구의 목적은 건강한 결혼생활을 예견할 수 있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심리적 변인들을 규명하여 부부의 행복유지 및 증진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우리나라 대도시에 거주하는 부부 550쌍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결혼 유형을 건강한 결혼, 형식적 결혼, 유약한 결혼, 상황적 결혼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바, 도시부부의 52%가 건강한 결혼 즉 순기능 결혼 범주에 속하고 48%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역기능 결혼의 범주에 속하였다.

2) 남편들의 결혼관계 건강지수가 아내들보다 의미있게 높게 나타나 결혼관계에 대한 부부간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3) 건강한 결혼을 예견하는 변인으로 남편에게는 존경과 대화가, 아내에게는 애정, 문제해결능력, 성생활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곧 심리적 변인이 사회인구학적 변인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I. 서 론

과학의 발전과 고도의 기술에 의한 급속한 경제발전은 우리의 사회환경과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 및 정서까지도 변화시키고 있다. 근래에 인간의 성공의 척도를 금전과 물질의 유무로 평가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우리사회의 규범처럼 받아들여지고 그것은 우리 개개인의 삶과 가족생활 그리고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들을 안겨주고 있다.

나만을 생각하는 극히 이기적인 삶은 이혼한 가족, 편부모 가족을 양산하고 가정교육이 마비된 부모교육의 부재에서 자녀들은 끔찍한 일들(지존파, 박한상 사건 등)을 양심의 거리낌없이 자행하고 있다. 젊은 부부들의 찰나적 사랑과 결혼생활 부적응, 중년기 인생의 재평가 과정에서 오는 부부 성격차이와 상호 불신으로 인한 가족해체 현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유엔이 정한 세계가족의 해를 맞아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 나라 가족 현황」 보고(1994. 5. 13)는 지난 20년 동안 이혼에 의한 가족해체현상이 갈수록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72

*이 연구는 한국 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이며 1994년 11월 10~13일 미국 Minneapolis에서 개최된 제56회 국제가족관계학회(NCFR)에서 발표된 내용의 일부이다.

년 한 해 동안 1만 2천쌍이던 이혼이 92년에는 5만 7천쌍으로, 약 4.8배 증가했으며 이것은 혼인 7쌍당 1쌍꼴로 이혼한 셈이다. 동거기간 별로는 결혼후 5년 이내에 이혼하는 비율이 36.3%로 가장 높아 혼인후 5년간이 부부생활의 고비임을 나타냈고 결혼 10년 후의 이혼비율도 36%로 증가하여 자녀에 대한 책임 의식과 부부간의 전통적 윤리관이 쇠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거기간을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 나라는 평균동거기간이 8.4년으로 미국 9.1년, 일본 10.8년, 영국 11.6년 등 서구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우리 나라가 가장 짧아 초기 결혼생활 부적응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통계청, 1994).

국가경제력은 아직 선진국의 문턱에 올라서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가족현황은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조기 분리, 파괴와 같은 탈가족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 이래로 이루어진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발전으로 인한 가족역기능의 결과로 가족구성원과 사회가 함께 많은 어려움과 큰 도전을 받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높은 이혼율과 가정폭력, 성폭행 그리고 청소년들의 비행과 범죄는 우리 가족의 구조를 문제의 가족, 연약한 가족, 병든 가족구조로 변화시키고 있다. 한국은 지난 10년동안 가족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많이 시행되어 왔으나 건강한 결혼이나 가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역기능적 결혼이나 가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건강한 결혼의 특성과 강점에 초점을 맞추어 건강한 결혼생활에 관련된 변인들을 규명하여 부부의 행복유지 및 증진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건강한 결혼에 관한 선행연구

지난 20년 동안 미국에서는 건강한 결혼과 가족에 대한 연구가 많은 가족전문가들에 의하여 계속 연구 되어왔다. 특별히 건강한 가족과 연약한 가족, 또는 문제 가족과의 차이점과 그들을 결정해주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제도적 결혼에서는 전통적인 성역할이나 관습 그리고 규범이 결혼의 성공과 행복의 척도에 의미 있는

기여 요인으로 생각되었다(Hicks & Platt, 1970). 그러나 동반자적 결혼에서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도구적 측면보다 정서적 측면(affective aspects)을 더 강조하고 있다(Levinger, 1964; Lewis & Spanier, 1979). 따라서 애정표현은 결혼의 행복척도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결혼생활에서 만족을 보이는 사람들은 그들의 배우자에 대하여 매우 친절하고 따뜻하며 포용력있는 반려자로 보고 있다(Luckey, 1964). 행복한 결혼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표현은 자신의 배우자를 가장 좋은 동반자로 보고 있으며 그에게 또는 그녀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Lauer & Lauer, 1985).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배우자에 대하여 더욱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건강한 가족들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강한 애정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고했다(Curran, 1984). 애정은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위하여 헌신 노력할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에 애정표현은 필수적 사항이며 행복한 결혼생활의 질을 높이는 바로미터 라고 진술했다(Notarius & Markman, 1993). 그러나 부부가 관심과 온정, 감정이입 등 최적의 감정으로 상호작용하는 건강한 부부일지라도 때로는 강도 높은 대립이 있을 수 있다고 Beavers(1982)는 말한다.

행복한 결혼에서 보여주는 역동적 특성은 존경이라고 Curran(1984)은 말한다. 존경은 서로를 지지해 주고 인정해주는 힘이며 가치있는 인간으로서의 확신을 심어준다. 가족 내에서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개인차(individual difference)에 대한 인정은 건강한 가족을 세우는데 필요한 요인이다. 건강한 가족은 가족구성원들이 갖는 다양한 특성과 상이점에 관심을 갖고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반면, 취약한 가족은 상호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개방성보다 통제성에 대한 관심으로 상호견해차(differences of opinion) 수용에 포용력이 약하다. Lauer와 Lauer(1985)의 연구에서도 행복한 결혼을 유지하고 견디게 하는 힘은 존경이라고 보고했다. 행복한 결혼을 견지해 가는 부부들은 그들의 배우자를 한 인간으로 좋아하며 서로의 차이를 수용하고 격려해준다는 것이다.

건강한 가족특성중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인이 대화라고 가족연구자들은 말한다. Otto(1962)와 Beavers(1982)는 좋은 대화와 건강한 가족기능의 정적

상관관계에 대하여 진술했고 Barnhill(1979)은 전달자와 수신자간의 대화내용의 명료화로 Lewis(1979)와 Stinnett(1979)는 효과적인 대화로 건강한 가족기능의 특성을 진술했다. Lewis(1979), Stinnett와 DeFrain(1985)은 효과적인 대화의 기술로서 훌륭한 경청(good listening)을 강조하고 있다. 경청은 대화에서 상호관계성(reciprocity) 유지와 상대방에 대한 존경을 표시한다. 훌륭한 경청은 대화내용에 대하여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각과 느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가족안에 갈등이 일어날 때 가족구성원들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과 저변에 깔려있는 문제점까지도 표출하여 서로의 사고와 느낌을 나눔으로 해결책과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해결능력은 건강한 가족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공통적 요인중의 하나이다. 건강한 가족들은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역기능 가족에 비해 문제를 빨리 인지한다고 Lewis(1979)는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문제의 원인을 배우자간의 상이성(difference)에 두고 있다. 그러나 Natarius와 Markman은(1993)은 결혼문제의 원인으로 대두되는 부부간의 상이성을 문제자체로 보지않고 그 상이성을 조정해나가는 방법을 문제로 보았다. 그리고 조화된 결혼생활을 위하여 결혼초기의 적응방식이 중요함을 지적했다. 그러므로 결혼의 행복은 누구와 결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생활에 직면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배우자가 서로 얼마나 유사하고 상이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이다. Gottman(1994)은 만일 결혼이 문제해결을 위한 감정이입이나 방어적인 적극적 경청, 그리고 동의와 승인을 향한 유머감각이 있다면 결혼생활에서의 갈등은 갈등 그 자체가 결코 결혼을 파괴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즉, 건강한 결혼은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대처해 나가며 야기된 문제로 가족구성원이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결속력을 보인다고 하겠다.

성생활을 통한 부부 상호관계의 만족은 건강한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므로 원

만한 성관계는 결혼관계를 증진시키는 상호보완적 관계라고 Jones, Shainberg와 Byer(1985)는 진술한다. Lee(1980), Persky(1982), Rho(1989)의 연구에서도 부부의 성생활 만족은 그들 결혼생활 만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활성적 결혼(vital marriage)의 부부들은 성생활을 그들의 전반적인 상호관계 유지와 그들이 지향하는 역동적인 친밀감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있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Ammons & Stinnett, 1980). 부부생활을 신선하게 유지하는 부부들은 미온적인 부부들에 비하여 성에 대한 높은 욕구를 표현하고 성관계의 적응과 조화에 노력을 보인다(Terman, 1951). 그리고 부부의 성관계 횟수와 요구도는 부부가 서로 같거나 비슷할 때 부부의 행복지수가 더 높다고 보고 있다.

건강한 가족연구의 선구자인 Otto는 1962년에 이미 건강한 가족을 유지시키는 요인들로 양육, 지지, 격려, 종교심, 대화, 문제해결능력, 가족의 활동 참여도, 부모의 자녀교육 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Lewis(1979)는 건강한 가족은 어떤 틀에 의하여 같은 형태로 찍혀 나오는 것은 아니며 가족구성원들의 기호도가 다르고 활동수준영역이 다르며 외부의 참여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상이성은 불가분한 것으로 여겼다. Lewis가 진술한 건강한 가족의 특성은 건강한 결혼, 대화, 문제해결능력, 열린 마음(open feelings), 가치관과 신뢰, 친밀감과 자율성, 상실에 대한 대처 능력과 부모의 권력 등이다.

Curran(1983)은 많은 가족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건강한 가족의 특성들을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건강한 가족은 가족간에 대화, 긍정과 지지, 존경, 신뢰, 여가시간, 책임감, 도덕심, 종교활동, 가치관, 개인생활 존중, 유머감각, 가족 구성원간의 조화된 상호작용, 가족전통 유지, 문제해결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강한 가족연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Stinnett(1979)는 미국전역에 걸친 다년간 연구에서 6개의 핵심적 요인에 대하여 가족구성원간의 헌신과 감사, 대화와 함께하는 시간, 문제해결능력과 종교생활 등을 제시하고 있다. Lustchens(1981)도 건강한 가족에 대한 부부만족 요인으로 배우자의 역할수행, 가족구성원들의 개별화에 대한 존중, 대화패턴, 결혼교실이나 예비상담을 통한 결혼준비, 함께

하는 시간 등을 들고있다.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하여 건강한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관련 변인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존경, 대화, 애정, 함께하는 시간, 헌신, 역할수행, 의사결정, 자존감, 가치관, 성생활 등을 설정하였다. 사전연구(서동인·정현숙, 1994; 최규련, 1993; Rho, 1989)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이 결혼만족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연구결과에 의하여 교육, 직업, 가계수입, 연령, 자녀수, 종교 등을 함께 건강한 결혼 관련변인으로 설정하였다.

2. 용어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건강한 결혼과 결혼관계 건강지수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건강한 결혼의 개념적 정의는 결혼관계에서 부부간 서로 만족감을 얻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결혼이라고 하였으며 조작적 정의는 결혼생활 건강척도에서 평점 이상의 높은 결혼 만족도와 결혼 안정성을 유지하는 결혼으로 하였다. 결혼관계 건강지수는 남편과 아내의 결혼관계 건강도를 수치화 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결혼유형은 결혼 만족도와 결혼 안정성을 두축으로 하여 건강한 결혼, 형식적 결혼, 유약한 결혼, 상황적 결혼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구분하였다. 즉, 결혼 만족도와 안정성이 모두 높은 결혼을 건강한 결혼 또는 행복한 결혼, 안정성은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결혼 유형을 형식적 결혼 또는 미온적 결혼, 결혼 만족도와 안정성이 모두 낮은 결혼유형을 유약한 결혼 또는 위기적 결혼, 결혼 만족도는 높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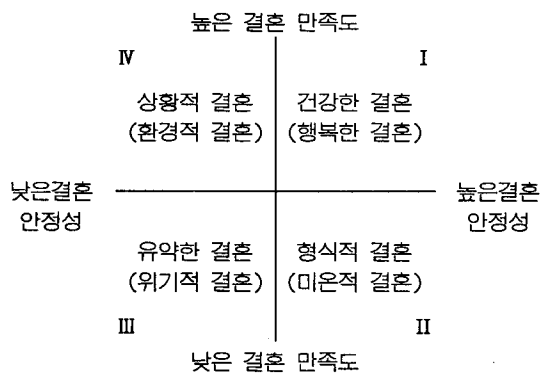


그림 1. 결혼유형.

안정성이 낮은 결혼을 상황적 결혼 또는 환경적 결혼으로 분류하였다.

3. 연구문제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결혼유형에 따른 남편과 아내의 건강한 결혼의 분포양상(profile)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건강한 결혼에 대한 남편과 아내의 결혼관계 건강지수는 차이를 보일 것인가?

〈연구문제 3〉 차이를 보인다면, 남편과 아내의 건강한 결혼을 예견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들은 무엇이며 그들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III. 연구방법

1. 측정 도구

1) 결혼관계 건강 척도(HMRS)

결혼관계 건강척도는 Stinnett의 가족건강척도(Family Strength Inventory)와 Ammons와 Stinnett의 활성적 결혼관계 척도(Vital-Total Marital Relationship Scale)를 참고,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14문항으로 된 가척도로 예비조사를 실시, 질문 문항의 타당도를 검토하여 10문항을 선정하였다. 결혼관계 건강척도의 영역은 애정, 대화, 존경, 가치관, 성생활, 문제해결 능력, 함께하는 시간, 역할 수행, 의사결정, 헌신(commitment) 등 10개의 영역이다. Cronbach's α 계수에 의한 신뢰도는 .85로 나타났고, 5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한 결혼을 의미한다.

2) 결혼 만족도

결혼 만족도 도구는 Schumm과 그의 동료들(1981)이 제작한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KMS)을 본 연구자와 Schumm(1989)이 수정보완한 Revised Scale(RKMS)을 사용하였다. KMS 척도는 결혼의 세 영역에 관한 개인의 인지도이다. 첫째는 전반적인 결혼에 대한 인지도이고 둘째는 배우자에 관한 인지, 셋째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인지도이다. RKMS 척도는 KMS의 세영역 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인지영역이 추가 되었다. 즉 자기 자신을 상대방의 배우자

로서 자신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7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 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92로 나타났다.

3) 결혼안정성

결혼안정성에 관한 척도는 Booth와 그의 동료들(1983)이 개발한 Marital Instability Index(MII)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9문항으로 선별 작성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결혼안정성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1로 나타났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우리나라의 대도시인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인천, 전주, 광주, 청주, 제주시에서 거주하는 부부와 시카고에 살고 있는 부부로 하였다. 1차로 작성한 가척도를 가지고 1993년 4월에 부산에 거주하는 부부 10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를 토대로 검토, 수정 보완한 본 조사용 측정도구로 1993년 5월 10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9개의 대도시에서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선정하여 학생들의 학부모와 7월 15일부터 8월 15일 사이에 시카고에 거주하는 재미교포를 대상으로 하였다. 총 2,0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이중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적합하다고 판단된 1,100부(남편 550, 아내 550)를 최종 분석자료로 삼았다.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3. 자료 분석

자료분석은 SPSS/PC⁺를 이용하여 측정도구 작성을 위하여 신뢰도와 문항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고 각 연구문제 검증을 위하여 t-test, Duncan's test, 일원변량 분산분석, 단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결혼유형에 따른 남편과 아내의 결혼 분포

결혼 유형을 네 집단으로 구분함에 있어 X축을 결혼

표 1.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 인	구 분	남편N(%)	아내N(%)
연 령	20-29세	8(1.5)	17(3.1)
	30-39세	193(35.1)	270(49.7)
	40-49세	266(48.4)	241(44.4)
	50-59세	76(13.8)	8(1.5)
	60세 이상	4(.7)	1(.2)
교육수준	중졸이하	70(12.7)	139(25.6)
	고 졸	190(34.5)	257(47.3)
	대 졸	224(40.8)	129(23.8)
	대학원 졸	58(10.5)	9(1.7)
직 업	무직(주부)	19(3.5)	370(67.3)
	생산, 서비스	172(31.3)	90(16.6)
	사무직, 기술직	285(51.8)	65(12.0)
	관리직, 전문직	59(10.7)	10(1.8)
결 혼 지 속 년 수	1-10년		128(23.3)
	11-20년		335(60.9)
	21-30년이상		87(15.8)
수 입	50만원 미만		14(2.6)
	50- 99만원		91(16.5)
	100-149만원		199(36.2)
	150-199만원		113(20.5)
	200-299만원		64(11.6)
300만원 이상		51(9.3)	
자녀수	1명		59(10.7)
	2명		305(55.5)
	3명		132(24.0)
	4명 이상		54(9.8)

안정성, Y축을 결혼 만족도로 놓고 X축의 중심점은 결혼 안정성에 관한 5점 Likert 척도 총점 45점중 평균 3.5에 가까운 32점을 Y축의 중심점은 결혼 만족도에 관한 7점 Likert 척도 4문항의 총점 28점중 평균 4.5인 18점으로 하였다. 표 2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제 1 유형인 건강한 결혼은 평균이상의 결혼 만족도($MS > 18$)와 평균 이상의 결혼 안정성($ST > 32$)을 갖는 형태로 전반적으로 행복한 결혼이라 할 수 있겠다. 표 2와 그림 2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건강한 결혼집단은 조사대상 부부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집단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3에서 남편은 건강한 결혼집단의 60%를 아내는 40%를 차지하고 있어 남편들이 아내들보다 건강한 결혼 집단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표 2. 결혼 유형에 따른 남편과 아내의 결혼 분포

집 단	결혼유형	결혼 만족도	결혼 안정성	남 편 N(%)	아 내 N(%)	전 체 N(%)
		MS	ST			
I	건강한 결혼	MS>18	ST>32	343(60)	229(40)	572(52)
II	형식적 결혼	MS≤18	ST≥32	86(39)	134(61)	220(20)
III	유약한 결혼	MS<18	ST<32	63(38)	102(62)	165(15)
IV	상황적 결혼	MS≥18	ST≤32	77(54)	66(36)	143(13)

도시부부의 결혼유형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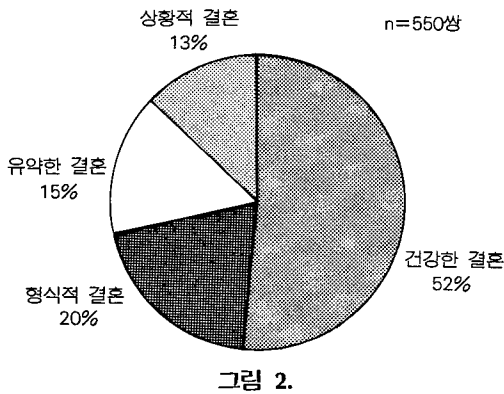


그림 2.

제 2 유형인 형식적 결혼은 평균이하의 결혼 만족도 (MS≤18)와 평균 이상의 결혼 안정성(ST≤32)을 갖는 형태로 부부간의 행복보다는 문자 그대로 결혼이라는 형식에 의하여 유지되는 결혼이다. 전반적으로 부부생활에 활기가 적고 만족이 적은 미온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혼으로 결혼이 해체되는 것을 원치않는다. 표 2와 그림 2에서 형식적 결혼집단은 조사대상 부부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그림 3에서 아내들이 형식적 결혼집단의 61%를 남편들이 39%를 차지하고 있어 아내들이 이 유형에 더 많음을 보여준다.

제 3 유형인 유약한 결혼은 평균 이하의 결혼 만족도 (MS<18)와 결혼 안정성(ST<32)을 갖는 형태로 전반적으로 결혼생활에 활기가 없고 안정성이 없는 취약하고 연약한 위기의 결혼이다. 표 2와 그림 2에서 유약한 결혼집단은 한국인 도시부부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그림 3에서 아내들이 이 집단의 62%를 남편들이 38%를 차지하고 있어 유약한 결혼 역시 아내들이 많음을 보여준다.

제 4 유형인 상황적 결혼은 평균 이상의 결혼 만족도 (MS≥18)와 평균 이하의 결혼 안정성(ST≤32)을

남편과 아내의 결혼 유형 비교 n=550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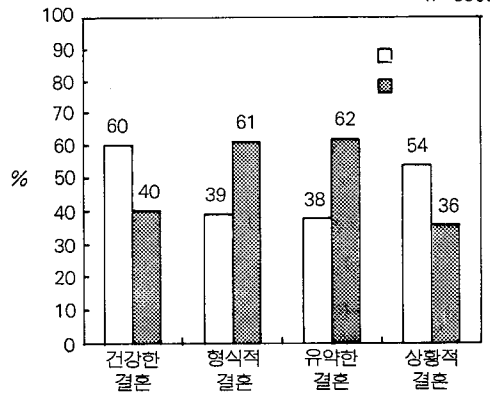


그림 3.

표 3. 대도시에 살고있는 한국인 남편과 아내의 결혼 관계 건강지수

성 별	N	평 균	SD	t
남편	550	38.57	6.5	4.91***
아내	550	36.35	7.6	

***p<.001

갖는 형태로 부부생활에 활기가 있고 만족감이 있지만 주위여건의 상황에 의하여 결혼의 안정성에 위협을 받는다. 표 2와 그림 2에서 상황적 결혼집단은 한국인 도시부부의 13%를 차지하고 있고 그림 3에서 남편들이 이 집단의 54%를 아내들이 36%를 차지하고 있어 상황적 결혼은 남편들이 더 많음을 보여준다.

2. 남편과 아내의 결혼 관계 건강지수

대도시에 거주하는 남편들과 아내들의 결혼관계 건강지수에 대한 평균값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t-test 결과가 표 3에 나타나있다. 표 3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남편과 아내의 결혼 관계 건강지수 평균이 기준점 35점을 상회하고 있어 대체로 건강한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편들의 결혼

관계 건강지수의 평균치는 38.57이고 아내는 36.35로 나타났으며 남편들의 결혼관계 건강지수가 아내들보다 의미있게 높게 나타나($p<.001$)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여준다.

3. 건강한 결혼 관련 변인들

1) 사회인구학적 변인

건강한 결혼을 예견할 수 있는 사회인구학적 독립 변인으로 연령, 자녀의 수, 학력, 가계소득, 직업, 종교 등을 선정하였다. 이들 변인들이 건강한 결혼생활을 어느 정도 예견해주고 설명해주는가에 대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p<.05$ 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변인들만 선정하였다. 표 4, 단계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인구학적 독립 변인중 남편들의 건강한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오직 연령($\beta = -.24$)이며 부적의 영향을 보이고 있다. 자녀의 수, 직업, 가계수입, 교육정도, 종교 등은 남편들의 건강한 결

표 4. 남편의 건강한 결혼생활을 예견하는 변인들

독립변수	단 계 1		단 계 2	
	b	β	b	β
사회인구학적 변인				
연 령	-.84	-.29**	-.55	-.19
가계수입	-.12	-.05	.06	.02
종 교	.03	.01	.02	.01
교 육	.78	.19	.11	.03
직 업	.34	.05	.17	.03
자 녀 수	.63	.14	.88	.19
심리적 변인				
존 경			.76	.26***
대 화			.75	.25***
애 정			.71	.24**
가 치 관			.62	.23**
성 생활			.36	.15*
문제해결능력			.18	.05
함께하는시간			.02	.01
헌 신			.04	.02
역할수행			.10	.04
의사결정			.03	.02
자 존 감			.03	.02
회귀상수	6.00		24.78	
R ²	.12		.62	

* $p<.05$ ** $p<.01$ *** $p<.001$

혼생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며 이들 사회 인구학적 변인들에 의하여 남편들의 건강한 결혼 생활은 약 12% 정도가 설명되어진다.

아내들의 건강한 결혼생활은 표 5, 단계 1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가계소득과 종교에 의하여 유의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나이와 자녀의 수, 교육정도, 직업에 의하여는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이들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에 의한 아내의 건강한 결혼생활 설명력은 약 23%이다.

표 5. 아내의 건강한 결혼을 예견하는 변인들

독립변수	단 계 1		단 계 2	
	b	β	b	β
사회인구학적 변인				
종 교	.85	.26*	.29*	.10
가계수입	.79	.26**	.14	.05
교 육	1.36	.23	.73	.12
직 업	-.86	-.18	-.60	-.13
연 령	-.75	-.19	-.47	-.11
자 녀 수	.82	.14	-.09	-.01
심리적 변인				
애 정			.87	.36***
문제해결능력			-.85	-.19**
성 생활			.45	.13**
대 화			.25	.12*
의사결정			.21	.11*
존 경			.31	.08
자 존 감			.21	.10
함께하는 시간			.07	.03
역할수행			.09	.04
가 치 관			.16	.06
헌 신			.24	.11
회귀상수	5.23		24.26	
R ²	.23		.74	

* $p<.05$ ** $p<.01$ *** $p<.001$

표 6. 종교에 따른 아내들의 결혼관계 건강지수 및 사후검정

종 교	N	평 균	SD	F	Duncan
기독교	21	45.81	2.80		a
카톨릭	12	43.83	4.36		ab
불 교	17	45.52	3.28		a
무종교	10	41.70	4.06	3.71**	b

** $p<.01$

아내들에게 있어서 종교가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종교변수를 일원변량분산 분석과 Duncan의 사후검정을 실시했다. 표 6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기독교인들의 결혼관계 건강지수가 가장 높고 무종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기독교와 불교 신자들은 무종교인보다 결혼 관계건강 지수가 의미있게 높게 나타났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아내들이 무종교의 아내들보다 더 건강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2) 심리적 변인

건강한 결혼생활을 예견하는 심리적 독립 변인으로 부부 애정관계, 부부 대화, 배우자 존경, 역할 수행, 문제해결능력, 함께하는 시간, 가치관, 자존감, 부부관계를 위한 헌신, 의사결정 등을 선정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 단계 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남편들의 건강한 결혼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은 존경($\beta=.26$)과 대화($\beta=.25$)이고 다음으로 애정($\beta=.24$), 가치관($\beta=.23$)과 성생활($\beta=.15$)순으로 나타났으며 역할수행, 문제해결 능력, 함께하는 시간, 부부관계를 위한 헌신, 자존감 등은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들 심리적 변인들에 의한 남편의 건강한 결혼생활 설명력은 62%이다.

표 5, 단계 2에서 아내들의 건강한 결혼생활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변인들은 부부의 애정관계($\beta=.36$)가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문제해결능력($\beta=-.19$), 부부의 성생활($\beta=.13$), 대화($\beta=.12$), 의사결정($\beta=.11$)순으로 나타났다. 역할수행, 함께하는 시간, 가치관의 유사성, 헌신, 존경, 자존감 등은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들 심리적 변인들에 의하여 아내들의 건강한 결혼생활은 약 74%가 설명되어진다. 단계 2에서 보여주는 것은 남편과 아내 모두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력은 사라지고 심리적 변인의 영향력만 남아있다. 표 4와 표 5에서 남편과 아내의 건강한 결혼생활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통 변인들은 부부간의 대화와 부부간의 애정관계 그리고 부부의 성생활이었다. 남편과 아내에게 영향을 미치는 서로 다른 변인들은 배우자에 의한 존경과 가치관의 유사성은 남편에게, 문제해결 능력과 의사결정은 아내에게 더 큰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건

강한 결혼생활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심리적 변인들이 사회인구학적 변인들보다 더 크게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 도시 부부의 결혼의 건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부관계에 초점을 두고 우리나라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남편과 아내의 인식에 근거하여 결혼생활 내용을 파악하였고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였다. 건강한 결혼 개념정립을 위한 결혼유형을 설정하고 건강한 결혼을 예견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연구결과가 한국 전체부부들의 건강한 결혼을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르지만 조사된 내용들을 아래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도시부부들의 결혼유형과 분포에 있어서 건강한 결혼 52%, 형식적 결혼 20%, 상황적 결혼 13%, 위기적 결혼 15% 순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한 결혼이 전체의 52%를 차지해 도시부부의 약 반이상인 건강한 결혼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5%정도가 결혼관계에서 부부애정, 부부만족 등 안정성 없는 유약한 결혼, 위기의 결혼 가운데 있어 언제 결혼이 해체 될지 불안한 가운데 있다. 상황적 결혼은 부부간 만족은 있으나 안정성이 없는 결혼이다. 외부적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즉 시가족, 처가족 또는 재혼에 의한 계부모 자녀들, 그들의 친인척들의 영향력으로 결혼해체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적결혼이 13%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결혼해체 가능성이 있는 부부, 즉 유약한 결혼과 상황적 결혼에 있는 부부가 전체 28%나 되어 가족전문가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결혼관계에 만족은 없으면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혼은 절대 안된다는 형식적 결혼도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남편보다 아내들이 61%를 차지하고 있어 많은 아내들이 부부간의 결혼관계를 통한 만족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결혼안정성을 유지하는것 같다. 즉 남편의 높은 가계수입을 통한 물질적 욕구충족이나 자녀나 종교, 일 등을 통한 만족으로 보상받으며 살아가는 아내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다. 건강한 결혼이라고 해서 문제가 전혀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문제발생시 그 문제를 덮어두지 않고

순발력있게 곧 바로 해결하여 결혼의 순기능을 유지해 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유약한 결혼, 상황적 결혼, 형식적 결혼은 부부문제가 장기화되도록 방지하여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역기능을 하고 있는 결혼이다. 역기능 결혼이 전체 48%를 차지하고 있어 이 또한 가족전문가들의 연구와 부부관계를 증진하는 가족생활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망된다.

둘째, 본연구를 통해서 남편들의 결혼관계 건강지수가 아내들보다 의미있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혼유형에서도 건강한 결혼 집단에 남편들(60%)이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유약한 결혼이나 형식적 결혼과 같이 취약하고 연약한 결혼집단에 아내들(60%)이 많았다. 남편과 아내가 한지붕 아래에서 똑같은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결혼관계 건강지수에 이처럼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부부간의 인식의 차이 또는 남편과 아내의 성역할에서 오는 갈등과 결혼만족감에서 오는 차이라고 사료되며 우리나라에서도 Bernard(1973)가 진술한 “그와 그녀의 결혼(his and her marriage)”에 대한 타당성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존경과 대화는 남편의 건강한 결혼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이다. 즉, 남편이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으면 받을수록 남편이 건강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Erich Fromm(1956)은 진정한 의미의 존경이란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다. 즉 남편이 어떤 존경할만한 가치가 있어 호모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라는 것이다. 남편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남편의 부족한 모습까지도 수용함을 의미하겠다. 흥미로운 발견은 대화가 남편의 건강한 결혼에 영향력있는 요인이라는 사실이다. 본 연구 대상이 주로 중년기 남편들임을 감안할때 중년의 남성들이 다른 어느시기의 남성들보다 더 아내와 함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나누고 싶어한다고 해석 되어진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남편들이 부부관계에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반면 아내에게는 애정과 문제해결능력, 성생활이 중요한 변인들로 발견되었다. 건강한 부부관계에서 애정표현은 결혼의 행복척도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남편들이 아내로부터 더 존경받기를 원하는 것과 같이 아내들은 남편에게서 더 사랑받기를 원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건강한 결혼은 부부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한다. 전통적인 남성위주의 사회에서 오는 남성의 권위,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은 아내의 건강한 결혼생활 유지에 치명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 연구에서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아내의 건강한 결혼을 위하여, 남편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결정을 아내와 함께 비방어적이고, 적극적인 경청의 대화자세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성생활에 대한 아내의 태도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때 건강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겠다. 흥미로운 것은 성생활이 중년의 아내들에게 건강한 결혼을 유지시키는 영향력있는 변인이라는 사실이다. Kinsey나 Hunt의 성연구에서도 여성들의 활발한 성욕구시기를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고하고 있어 이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하고 있다.

학력이나 직장, 가계소득, 나이, 자녀수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심리적 변인만큼 건강한 결혼생활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내에게는 종교, 가계소득이 건강한 결혼생활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기독교나 불교를 믿는 아내들이 무종교의 아내들보다 더 건강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이다. 결론적으로 건강한 결혼생활을 예견하는 변인들은 남편에게는 존경과 대화이고, 아내에게는 애정과 성생활, 문제해결능력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 1) 서동인·정현숙(1994). 가족 생활주기에 따른 도시 가족의 부부관계. 한국 가족상담. 교육연구소 개소 1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 연구보고서 1 : 2-38.
- 2) 최규련(1990). 부부관계. 대한가정학회편, 가정학의 최신 정보 III. 아동학. 가족학. 교문사.
- 3) Ammons, P & Stinnett, N.(1980). The vital marriage : A closer look. *Family relations* 29, 37-42.
- 4) Barnhill, L.R.(1979). Healthy family systems. *The Family Coordinator* 28, 94-100.
- 5) Beavers(1982). Characteristic of healthy families : The second handbook in parent education. Academic

- Press.
- 6) Benokraitis, Nijole V.(1994). *Marriages and Families : Changes, choices, and constraints*. New Jersey : Prentice Hall.
 - 7) Bernard, J.(1973). *Remarriage : A study of marriage*. New York : Dryden.
 - 8) Booth, A. & Edwards, J.N.(1983). Measuring marriage and the famil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 9) Cuber, J. & Haroff, P.(1965). *Sex and the significant Americans*. Baltimore : Penguin Books.
 - 10) Curran, D.R.(1983). *Traits of a healthy family*. New York : Ballantine Books.
 - 11) Douvan(1992). *Psychology Today*, Jan/Feb. pp.48-54.
 - 12) Fromm, Erich(1956). *The art of loving*. New York : Harper & Row, Publishers.
 - 13) Geerken, M. & Gove, W.R.(1983). *At home and at work : The family's allocation of labor*. Beverly Hills, CA : sage.
 - 14) Gottman, J.(1992). *Why marriage succeed or fail*. Simon and Schuster.
 - 15) Greeley, A.M.(1992). *Faithful att raction*. New York : A Ton Doherty Associate Book.
 - 16) Hicks, M.W. & Platt, M.(1970). Marital happiness and stability : A review of the research in the six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 553-557.
 - 17) Jones, K.L, Shainberg, L.W. & Byer, C.D.(1985). *Dimensions of human sexuality*. Dubugue, Iowa : Brown Publishers.
 - 18) Kaplan, P.S.(1988). *The Human Odyssey*. New York : West Publishing Company.
 - 19) Lauer, J. & Lauer, R.(1985). *Psychology Today*, June. pp.22-26.
 - 20) Laderer, W.J. & Jackson, D.D.(1968). *The Mirages of marriage*. New York : Norton.
 - 21) Lee, P.A. & Brage, D.G.(1989). *Fmaily life education and reserch : Toward a more positivè approach*. The second handbook in parent education. Academic Press.
 - 22) Lee, D.B.(1980). *Military transc ultural marriage : A study of marital adjustment between American husbands and Korea-born spous*.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versity of Utah.
 - 23) Levinger, G.(1964) *Task and social behavior in marriage*. *Sociometry* 27 : 433-448.
 - 24) Lewis, J.M.(1979). *How's your family?* New York : Brunner/Mazel.
 - 25) Lewis, R.A. & Spanier, G.B.(1979).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Burr, W.R., Hill, R., Nye, F.I. & Reiss, I.L.(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maily*(Vol. 1). NY : The Free Press.
 - 26) Luckey, E.B.(1964). Marital Satissfsaction and personality correlates of spous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6(5) : 47-48.
 - 27) Lustchens, M.H.(1981). *An anal ysis of some characteristics of strong families and the effectiveness of marriage and family life education*. Unpublished Dissertation. University of Nebraska Lincoln.
 - 28) Notarius, C. & Markman, H.(1993). *We can work it out : Making sense of marital conflict* Putnam.
 - 29) Otto, H.A.(1962). *What is strong family ?* *Marriage and Family Living* 24, 77-80.
 - 30) Otto, H.A.(1975). *The use of family strength concepts and methods in family life education : A handbook*. Beverly Hills : Holistic.
 - 31) Persky, H., Charney, H., Stauss, D., Miller, W.R. & Lisf, H.I.(1982). *The relationship of sexual adjustment and related sexual behaviors and attitudes to marital adjustment*.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8 : 49.
 - 32) Rho, J.(1989). *Muliple factors contributing to marital satisfaction in Korean-American marriages correlations with three dimentions of family life satisfaction*. Unpublished dissertation. Kansas State University-Manhattan.
 - 33) Rho, J. & Schumm, W.(1989). *The factorial validity of brief satisfaction scale*. *Psychological Reports* 65 : 1347-1350.
 - 34) Sinnett, N. & De Frain, J.(1979). *Secrets of strong families*. Boston : Little, Brown and Company.
 - 35) Schvaneveldt, J.D. & Young, M.H.(1992). *Strengthening fmailies : New horizons in family life education*. *Fmaily Relationships* 41, 385-389.
 - 36) Terman, L.M.(1951). *Psychological factors in marital happiness*. New York : McGrow-Hill.
 - 37) Schumm, W., Bollman, S. & Jurich, A.(1981). *Dimensionality of an abbreviated version of the relationship inventory : An urban replication of with marital couple*. *Pysychological Reports* 48 : 51-56.